

# 2022년 클래식 음악계 결산

노승립 숙명여자대학교 문화행정학과 교수

본 브리핑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접어든 2022년 해외 공연예술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내한 공연 현황 그리고 한국 아티스트 및 악단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 ■ 전염병과 경제적 위기를 넘어선 이례적인 호황

연말연시다. 언론사도, 방송사도 약속이나 한 듯 연말 결산을 쏟아내고 있다. 적어도 문화예술계 결산만큼은 지난해보다 풍요로워 보인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마침내 부활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전염병의 공포에 억눌려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었던 침체기에서 벗어나 공연시장이 큰 보폭으로 약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중에서도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활력은 그 어느 해의 도시보다도 유별나게 뜨겁다. 유럽에서도 코로나 기간 중 폐쇄된 콘서트홀의 문을 열고 취소되거나 연기된 일정들을 차례로 무대에 올리기 시작하긴 했다. 하지만 그 열기나 호응도는 코로나 이전만 못하다. 팬데믹의 후유증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야기된 경제적 불황이 찾아온 탓이 크다. 클래식 공연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시즌 회원수가 급감하고, 개별 공연 티켓 판매 수익도 현저하게 떨어졌다. 기존의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은 공연을 볼 것인지 말 것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강해졌고, 어지간히 이슈가 큰 공연들도 매진을 바라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굴지의 클래식 음악 매니지먼트 회사인

아스코나스 홀트가 최근 샌프란시스코 음악원에 매각된 사건은 유럽 음악계가 처한 경제적 위기를 방증한다. 대규모 인원 감축을 감행하며 전염병의 시대를 간신히 극복한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공연장들도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다. 다시 정상화된 업무를 위해 추가 인력을 뽑을 경제적 여력이 없어 직원들은 각기 팬데믹 이전의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몫을 감당하는 중이다. 공연계가 다시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정부들이 음악계에 대한 긴급 지원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파리의 공연계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음악 시장의 큰 자본주의의 자율성에 맡겨두는 영국은 유럽 본토보다 상황이 훨씬 나쁘다. 2017년부터 런던 심포니 음악 감독직을 역임중인 사이먼 지휘자 래틀은 예정보다 이르게 직위를 그만둔다. 최근 독일 영주권을 취득한 그는 내년 시즌부터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수석지휘자로 약 5년간 악단을 이끌 예정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유럽에서 고립되는 것을 우려한 그는 최근 코로나 기간 중 영국 정부가 예술계를 충실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바 있다.

## ■ 뜨거웠던 내한 러시

흥미롭게도 한국의 음악계, 적어도 클래식 시장은 유럽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엔데믹을 기다렸다는 듯이 굵직한 아티스트 및 오케스트라들의 내한 공연이 줄을 잇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공연들이 대체로 흥행에 실패하지는 않는 모양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항공료 및 악기 운송 물류비가 급증해서 클라우스 메켈레가 이끄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주빈 메타가 이끄는 독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투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무사히 내한해 공연을 완주한 케이스가 더 많았다. 사이먼 래틀이 이끄는 런던 심포니 내한 공연(10월)을 시작으로 빈 필하모닉(11월), 도이치 카머 필하모닉(12월),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12) 등 유수의 해외 명문 오케스트라들이 한국을 찾아와 흥행에 있어서도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11월 말 452년 전통을 가진 베를린 슈타츠크펠레의 첫 내한 공연은 흥행뿐 아니라 연주의 완성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와병으로 인해 음악 활동을 전면 중단한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의 내한은 무산되었지만 그를 대신해 찾아온 크리스티안 텔레만과 함께 완성한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은 이 작품들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기준을 제시했다.

수준급 아티스트들의 리사이틀 또한 풍성했다. 상반기에는 피아니스트 랑랑(2월)과 크리스티안 지메르만(3월)의 독주회가 애호가들 사이에서 명연으로 회자됐다. 이들은 특히 짧지 않은 자가격리를 감수하며 찾아온 아티스트들이어서 청중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자가격리 정책이 해제된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음악가들이 전국 곳곳의 공연장들을 가득 채웠다. 포르투갈 출신의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와 같은 저장급 아티스트가 첫 내한공연(11월)을 가졌고, 마찬가지로 첫 내한 리사이틀 무대를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10월)는 대구와 인천에서 각기 이틀에 걸쳐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

연주회를 가졌다. 11월에 서울에 찾아온 피아니스트 언드라시 시프는 무려 네 시간에 걸친 마라톤 콘서트를 가졌다. 이 공연은 사전에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공개되어 콘서트 당일에 연주자가 즉흥적으로 연주할 곡목을 정하고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며 진행됐다. 그보다 5개월 일찍 방한한 중국 피아니스트 유자왕 또한 당일날 현장에서 일부 곡목과 순서를 변경해 더욱 알찬 연주회로 이끌었다.

전쟁으로 인해 급증한 항공 운임비와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티켓 가격이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한 공연들이 흥행으로 이어진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가령 빈 필 내한공연은 R석 티켓값이 48만 원이라는 최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문이 닫혀있던 올 한 해 동안 예외적으로 활기찼던 한국 클래식 음악 시장은 해외 악단과 아티스트들이 투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활로로 각광받은 분위기다. 베를린 필과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의 모처럼의 내한 공연이 약속된 내년에도 '내한 러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경제 불황이 서서히 체감되는 가운데 음악 애호가들의 지갑이 언제까지 계속 열려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 ■ 한국 아티스트와 악단들의 약진

내로라하는 해외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줄을 잇는 와중에도 그 사이에서 한국 음악가들의 활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선우예권의 티켓 파워는 여전했으며, 팬데믹 기간 중 내한 공연이 위축된 것을 기회 삼아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영역을 더욱 다졌던 국내 아티스트들과 악단들의 무대도 꾸준히 청중들을 끌며 공연 생태계에 다양성을 가져왔다. 음악적인 내용 면에서도 결실이 많았다. 코리안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랄프 고토니의 지휘로 모차르트 교향곡 전곡 사이클을 거의 완주했다. 최수열이 음악감독으로

있는 부산시향은 진은숙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비롯한 여러동시대 한국 작곡가들의 음악을 악단의 레퍼토리의 반열에 올렸다. 홍석원이 이끄는 광주시향은 최근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하라’ 실황 음반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녹음했다. 이 레퍼토리에 한해서 한국 악단에 의해 정식 레이블로 출시된 최초의 업적이다.

무엇보다 올해 클래식 음악계의 최대 성과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화려한 등장이다. 지난 6월 뱀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대회 역사상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그는 우승한 그 순간부터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음악계에 하나의 ‘신드롬’으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 올라온 그의 결선 연주 영상은 조회수 1천만 회를 내다보고 있으며, 뉴욕 타임스는 ‘올해 10대 클래식 공연’에 그의 콩쿠르 연주를 포함시켰다. 임윤찬보다 한발 앞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을 석권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첼리스트 최하영, 최연소 나이로 유럽 굴지의 매니지먼트사 KD 슈미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첼리스트 한재민 또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과는 ‘개화(開花)’보다는 ‘발아(發芽)’에 가깝다. 이제 막 싹을 틔워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펼칠 터전을 확보한 이들 젊은 아티스트들의 미래가 곧 우리 음악계의 미래가 될 것이다.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림(2022). “2022년 클래식 음악계 결산”.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314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승림 [anna.s.roh@gmail.com](mailto:anna.s.roh@gmail.com)  
ACKIS브리핑 발행일 2022.12.29.

#클래식음악계 #엔데믹 #문화예술 #예술 #공연예술  
#내한공연